매일 INDEX

3면
"내란 종식 완수"… 야 5당, 원탁회의 출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음 1월 23일) 제3686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9일 군산시 사정동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에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등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서해안 의료 허브 첫걸음

군산전북대병원 '첫 삽'

2028년 10월 개원 목표로 사정동 건립 부지서 내달 착공

의료시설 확장 넘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초석 마련 전망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이 첫삽과 함께 서해안 의료 허브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군산시 사정동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에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공식에는 전북대병원 양종철 병원장과 이사장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비롯한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대북공연으로 힘찬 서막을 연 이날 행사에서는 관계 내빈의 축사와 환영사 이어 시삽 이벤트와 축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며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2009년 새만금지역 분원의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시작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서해안 시대 최고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북대병원의 도전과 군산시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희망이 어우러지면서 급물살을 탔으며 2013년 1월 교육부로부터 건립사업 승인을 받았다.

환경문제와 부지변경,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지만 전북대병원과 지역 주민, 정치권, 지자체,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해왔다. 특히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긴밀한 협력, 정치권의 지지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었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며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하게 됐다.

신설되는 군산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3329억원(국비 99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10층의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단순 질환자가 아닌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특화된 전문진료를 통해 군산권역을 넘어 충남 서남부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의료시설의 확장을 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책무를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고 국가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시설의 확장을 넘어 의료진 및 관련 인력 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서해안 의료 허브로, 서해안 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약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과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미 있는 날이다"며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핵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지역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산 전북대병원이 개원하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시설공단 "시민 행복 최우선"

2025년 혁신 청사진 발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안전과 소통, 고객만족, 혁신을 4대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사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19일 전주시청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는 '2025년 신년 브리핑'을 열고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은 △안전우선 윤리경영 △소통공감 동행협력 △고객만족 시설관리 △혁신역량 지속발전이라는 4개 경영목표와, 중대재해 예방, 친환경 경영, 고객 만족도 향상,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16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체육, 교통, 환경, 장사 등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연상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이 19일 전주시청에서 2025년 혁신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안전우선 윤리경영
소통공감 동행협력
고객만족 시설관리
혁신역량 등 목표 설정

▲탄탄한 '안전우선' 경영 기반 위에 '윤리경영' 실현

공단은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안전 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물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유지하며, 직원 대상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방적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자체감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조직 내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 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함께 소통공감, 지역사회와 동행협력 열린 행정 실현

공단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SNS 활동 및 찾아가는 간담회를 확대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내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열린 대화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더욱 강화한다. 이와 관련 교통약자 지원차량은 2015년 8월부터 총 97대를 활발히 운영하며, 연간 32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45억 원 정도 투입되며 작년 말 만족도 조사 결과 호응도가 높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효율적·체계적인 '시설관리' 구현

공단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체육시설, 장사시설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민원 감소 및 고객 만족도 10% 향상을 목표로 하는 '텐텐(10%-10%) 클럽'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시설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역량' 강화로 성장 촉진, '지속발전'으로 경쟁력 확보

디지털 전환 가속화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공단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챗봇 기반 고객 응대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해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신규 수익 창출 모델을 도입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공단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취임 이후 살펴본 바 공단 직원이 많은 것 같으나 근무지가 지리적으로 소수 인원이 외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 분산되어 있으며, 새벽에 출근해서 한밤중에도 퇴근하는 등 교대 근무형태가 대부분이나 모두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느꼈다.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옥기 기자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도내 51곳 총 70명 등록

금고 34곳은 후보자 1명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19일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51개 금고에 총 70명이 등록(71명 중 1명은 사퇴)해 평균 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도내 51개 금고 중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등록한 17개의 금고는 선거를 치르게 되고, 1인의 후보자만 등록한 34개 금고는 선거사무가 중지되며 등록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고별 후보자등록상황과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월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운동 방법 중 선출유형(직선, 대의원회)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